

13세기 대원제국의 탐라 다루가치 연구

이 병 렬 · 이 종 수

The article consists of five sections. The first section clarifies research questions, the purpose of study and methodology about Yeke Mongghol Ulus's Tamra Darughachi in 13 century. The second section deals with methods of study, literature review,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background of Yeke Mongghol Ulus's Tamra Darughachi in 13 century & cultural effect in 13 century. The analytical variables of a characteristic of Mongolia domination culture, Pax Mongolica, Tamra Ro(路), Five duties, Darugachi & social culture, food culture acculturation, so forth. The third section presents analysis variables about Yeke Mongghol Ulus's Tamra Darughachi in 13 century & cultural effect in 13 century. The fourth section suggests research effect & limitations of effect analysis of Yeke Mongghol Ulus's Tamra Darughachi in 13 century & cultural effect in 13 century. The last section concluded. There were some suggestion & expectation effect of the study.

1. 서 론

이 글은 필자의 탐라와 몽골연구 선행연구(이종수, 2012.6. 2013.12. 2014.6)들에 대한 후

제1저자 : 이병렬, 제2저자 : 이종수

주 제 어 : 대원제국, 탐라총관부, 다루가치, 로(路)행정, 문화변동

Key words : Yeke Mongghol Ulus's Domination, Tamra Commandery, Five Duties, Darughachi, Ro(路) Administration, Culture acculturation

속연구물로서 대원제국의 탐라 다루가치 행적을 중심으로 그 문화적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은 원제국의 문화가 탐라(이하 제주와 혼용)지역 문화에 미친 영향분석이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탐라는 몽골의 직접 지배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그들이 직접 관료를 파견하여 지배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하여 몽골문화가 가시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에 그러하다. 예컨대 1276년 탐라 다루가치가 둔전병(屯田兵)과 주민에게 호마, 우량 소목장을 개설하여 사육하게 하였으며(이성우, 1984: 31), 그 결과 탐라의 사회문화에 몽골의 문화가 잔존하고 있다(이종수, 2013.12).

13세기 대원제국의 탐라직할지배 130여년 결과 다양한 문화접변과 변동, 토착화가 이루어졌으며(이종수, 2013.12), 약 700여 년이 지난 2014년 현재 몽골은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ODA 수위국가가 되어 지배, 피지배역사의 아이러니를 보게 된다(이종수, 권찬호, 2012.6).

본 연구의 방법은 13세기 고려에 대한 몽골지배의 선행연구 분석 및 문헌연구와 필자의 선행연구(이종수, 2010. 2011. 2013. 2014)를 참조하고, 기타 학술지 및 사료분석이다. 12~13세기 몽골 관련 학술지와 논문, 『몽골비사』 기록과 『元史』, 『高麗史』, 『역주원고려기사』(문연식, 2008) 등의 사료를 참조하였다(김상기, 1962. 고병익, 1962. 장동익, 1990. 1992. 고창석, 1984. 1998. 김동전, 2010. 배숙희, 2012. 권영국, 1994. 김일우, 2000: 288. 오타기 마쓰오, 2013. 에르테니 바타르, 2006. 2009). 당시의 대원제국의 문화 특성과 700여 년 전 지배자들의 문화현상을 분석하면 현재 제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문화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접근방법이다.¹⁾

II. 13세기 대원제국의 탐라 지배체제

1. 대원제국의 탐라통치 배경

1) 대원제국의 지배체제

13세기 몽골에 복속된 모든 나라들은 원의 ‘육사(六事)’의 의무조항을 강요받았다(국립제주박물관, 2006: 125. 이익주, 2011: 79). 이는 원 조정에 왕족을 인질로 보내는 납질(納質), 전쟁 작전에 파견하는 군사, 助軍과 군수물(軍需物)을 조달하는 수량(輸糧), 육로교통망을

1) 지역년대가설(地域年代假說)은 어떤 문화의 핵심어휘(또는 문화)가 인간의 이동에 따라 고향으로부터 멀리 퍼져 나가고 나서(예컨대 제주의 상위떡의 일본 쓰루하시 정착이나, 터키어 복닥이 제주 고착 등) 세월이 흐르면 고향의 어휘는 바뀌었는데 퍼져 나간 지역에서는 옛 어휘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이론이다. 순자는 ‘荀子’ 비상 편에서 “천년 전의 일을 알려면 오늘 일부러 잘 살펴야 하며, 억만 가지 일을 알고자 한다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일부러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가까운 것을 바탕으로 하여 먼 것을 알고, 한 가지를 바탕으로 하여 만 가지를 알며, 작은 것을 바탕으로 큰 것을 알게 된다”고 했다(순자, 비상 5: 127).

있는 역참을 설치하는 설역(設驛), 자국의 인구조사를 보고하는 편호적(編戶籍), 그리고 몽골의 감시관인 달로화적(다루가치)을 설치하는 치장관(置長官) 등이다(박용운 외, 2003: 183). 몽골의 속국 통치구조는 몽골(황제), 지역별 승상, 정동행성(동로군과 정일본행성, 강남군)을 통해서 행해졌다. 정동행성(征東行省)은 원의 11개 지방행정기관으로 지방통치는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통제했다(고병익, 1962. 장동익, 1990).

2) 탐라총관부

원은 1273년 삼별초 토벌 이후 탐라에 탐라총관부를 설치하고, 로행정(路行政)을 실시한다. 원나라의 탐라 통치는 내지의 변원지역과 비슷한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탐라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대원제국의 직접통치 지배체제였다(배숙희, 2012: 105). 지방 행정관부인 로(路) 또는 부(府)·주현(州縣)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었다. 다루가치가 고려에 처음 배치된 것은 1231년(고종 18) 제1차 몽골 침입 때였다. 그리고 몽골은 고려의 마지막 항몽 세력인 삼별초를 탐라에서 정벌한 뒤, 탐라를 자신의 직할령으로 삼고 관할하기 위한 관부를 설치했는데, 그 관부의 장관으로 탐라 다루가치를 파견·주재케 했다(고병익, 1962). 다루가치(達魯花赤, Darughachi)는 제주도를 장악하며 조선용 목재를 징발하고 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목마장을 다수 개발하였다. 원의 목마장은 충렬왕 2년 총관부의 다루가치 탐자적(塔刺赤)이 몽고말 160필을 서귀포시(구 남제주군) 성산읍의 수산평에 방목함으로써 처음 만들어졌으며 이후 확산되었다.

셋째, 하속 관원들이다. 총관부의 다루가치를 중심으로 총관은 탐라성주가, 집행은 屬官(향리)들이 맡았다. 탐라물자 수탈의 책임은 다루가치가, 집행은 속관층에서 맡은 것이다. 일본 정벌용 전함 건조주체는 백성, 작업의 집행은 토착세력과 속관이 주도했다(김일우, 2000: 303-304). 원은 탐라민의 동원에 대한 포상과 회유, 군사동원 근거로 金牌 등을 수여했다. 한편 고려는 충렬왕 26년(1300)에는 제주에 동·서 도현(東西道縣)을 설치한다(김일우, 2005: 266). 대촌에는 호장 3인, 성상 1인, 중촌에는 호장 3인, 소촌에는 1인을 두었다. 행정단위(구역)는 주현인 제주목, 15개 속현구조다. 읍사(邑司)와 향리가 신설된다. 이것은 동서야막을 기준으로 몽골국립목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국립목장 때문에 제주사회의 경제력과 인구 등의 규모 확대가 이루어진다. 제주목과 동편의 성의현, 서편의 대정현으로 현재의 모태가 된다(김일우, 2005: 267).

3) 주요 시책

(1) 군사 주둔

1273년 여몽군의 삼별초 토벌 이후 원은 본격적으로 군을 주둔시킴과 동시에 둔전(屯田)을 설치한다. 명분은 일본원정에 필요한 군량의 확보라고 하나 실은 고려 조정과 군대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였다(권영국, 1994: 134-136). 제주에도 500명의 원군을 주둔시켰다(『高

麗史節要』 1권 19, 원종 14년 4월). 특히 원은 군의 발령권(發令權), 발병권(發兵權), 장병권(掌兵權)을 장악하고, 군기(軍器)도 철저히 통제한다. 만호부의 만호, 부만호 임명권도 행사한다. 탐라 둔전군은 둔전경략사에 속한 군인들이다. 탐라국초토사에 鎭邊軍 1,700을 주둔시켰다(『元史』권208, 열전 95 탐라전). 몽골둔전병(屯田兵)은 10개 처에 각 둔전마다 용군(用軍)이 500명가량이었으며, 경략사가 주관하였다. 삼별초 정벌 시에는 둔전군, 한군(漢軍), 무위군, 고려군 등 모두 하여 1만 2천여 명이였다(고창석, 1998: 460).

(2) 목마장과 전마 사육

1276년 충렬왕 2년 몽골의 말을 제주에 방목한다(김일우, 2000: 251). 성산 수산리(성산평)와 한경 고산리(고산평, 차귀) 아막(牙幕)에서 몽골의 전마를 충당하게 되며, 몽골의 ‘하치(牧胡)가 사육했다. 제주도에 왔던 하치들은 몽골족의 방목방식과 제주도의 방목방식을 절충했다. 제주민과 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말이 크게 번식해 산야에 가득했다고 한다. 당시 제주도 인구는 대략 1만여 명, 말도 2-3만 필이었다(김일우, 2000: 211. 박용운 외, 2002). 탐라는 몽골제국의 14개 국립목장 중의 하나였다(에르데니 바타르, 2006: 89).

목장은 마장(馬場)을 가장 중시했으며 원은 목호에게 직접 관리하게 하였다(남도영, 1969: 681). 충렬왕 13년에는 축마별감(畜馬別監)이란 관직을 만들어 수시로 제주에 파견하였다(『高麗史』卷 82 志 36 兵志 2). <표 1> 참조

<표 1> 대원제국의 목축정책 사례

년대	전래자	유형	출처
忠烈王 2년 8	塔刺赤	馬 160匹	高麗史 卷 28, 世家 28
" 3년 12	秃哥 등 18인	馬 30, 狗 150필	"
" 3년 正丑	塔羅赤牛	牛, 馬, 駱, 驢, 羊	東國輿地勝覽 38 濟州牧條
" 4년 2	塔刺赤	海東靑	高麗史 卷28
?		鹿	世宗實錄 卷 52
" 26년	奇皇后	鹿, 馬	世宗實錄 卷151

출처: 남도영(1969: 681)

(3) 함선 건조

고려는 쿠빌라이의 전함 1千艘 건조지시에 일본원정기지로 전환한다. 군사와 군비부담(국립제주박물관: 126)측면을 보면, 충렬왕은 “신으로 하여금 일본원정케 하소서”(『高麗史節要』 권 20)했다. 고려에 대해 즉시 전쟁준비를 독촉하는 가운데, 1279년(충렬왕 5년) 南宋을 멸하고 그 여세를 몰아 일거에 일본의 항복을 받고자 征東行中書省 이란 官府를 고려에 두고 忠烈王을 中書左丞相行中書省事라는 元の 職名으로 수여하고 일본정벌에 대한 사명완수를 명했다. 이에 충렬왕은 兵船 9백쌍(百艘), 梢工水手(배 만드는 匠人) 1만5천명,

正軍1만명, 兵糧11만 漢石 기타 짐물, 기계 등을 부담할 것을 元主에게 약속했다. 충렬왕 6년 5월에는 탐라에서 조선용재(造船用材) 30쌍 분((艘分)(고창석, 1984: 378)을 공급해 왔다. 탐라는 당시 戰艦 修理場이었다. 고려 관료들의 전마(戰馬) 供出, 주정(酒精) 공출은 몽골군 소비품의 재원부족 충당분들이다. 전함병량도감(戰艦兵糧都監)에서 戰艦管理와 兵糧 수급 업무를 도맡았다.

충렬왕 7년 2차 정벌 시 탐라에서 건조한 선박이 홍다구에게 전달된다. 2차 실패 후에도 탐라를 3천척의 대선선박 건조에 참여시켰다(고창석, 1998: 453-454). 1269년에는 추밀원 관리를 흑산도와 탐라에 1,2차에 파견하여 현지를 시찰시켰다. 전함건조 시찰과 몽골관리들의 열병을 포함했다.

(4) 대원제국과 탐라의 교통체제

‘잠치(站赤)’로 불렸던 ‘대몽골제국’의 역전제도(驛傳制度)는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제국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다. 역참(驛站)이라는 표현은 잠치의 중국식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30여 년간 지속된 고려 최씨 정권의 대몽항쟁이 종료되면서 몽골과 고려 사이에는 화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정요근, 2007).

원은 종속세력에 대한 정례(定例) 요구로 ‘육사’에 의거 고려에 잠치설치를 요구한다(모리히라 마사히코, 2001: 183). 의주-개경-합포-나주-탐라(제주) 노선이다. 이 잠치는 원과 고려정부, 전선의 연락, 병경 수비의 기반이었다.

탐라 다루가치는 충렬왕 4년에 이미 나주, 해남 방면에 역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 탐라에서 거두어들이는 물자의 원제국 수송을 위해 운영된 것이다(김일우, 2000: 293-299). 탐라와의 연결로는 해로(水驛)였다. 해상잠치(水站)는 물자의 대도(大都) 수송용이었다. 제주도(명월포)→ 한반도 서안→직고 항로였다. 잠치는 약 40여개가 있었다가 20여개로 줄어든다. ‘천하참명(天下站名)’에 의하면 의주→ 개성→ 합포 노선과 나주→ 탐라노선 등을 확인할 수 있다(모리히라 마사히코, 2001: 185-188).

2. 선행연구와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분석

주요 선행연구로서는 먼저 김상기(1961)의 고려사 연구와 국립제주박물관(2006)의 몽골의 역사와 문화, 김일우(2005)의 고려, 탐라사 분석, 이종수(2012)의 탐라의 몽골문화 분석, 고창석(1984)의 려, 원과 탐라의 관계, 고병익(1962)의 려대 정동행성, 고병익(1977)의 고려와 원의 관계, 장동익(1990, 1992)의 정동행성 연구, 김동전(2010)의 조선 후기 대원 본관분석, 배숙희(2012)의 대원후손 분석, 이종수(2010, 2012, 2013, 2014) 등을 제시할 수 있다. Buell(2002)의 몽골제국연구와 Buell(2003)의 칸의 음식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내용을 <표 2>에 예시한다.

<표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 분석과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몽골의 지배 체제와 탐라 문화	김일우(2005), 고려시대 제주사회 변화	사료분석	탐라사연구
	김동전(2010),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족 가문사례 분석	사례분석	탐라의 몽골본관 분석
	고병익(1999), 고려와 원과의 관계분석	사료분석	정동행정연구
	고병익(1962) 정동행정	사료분석	정동행정 연구
	장동익(1990), 정동행정 연구	"	정동행정 연구
	고창석(1982), 고려전기 탐라군현 설치분석	"	고려의 군현연구
	고창석(1998), 원관련 고려기사 분석	"	원제국기 고려문헌 분석
	고창석(1984) 러,원과 탐라관계 분석	"	원과 탐라관계 분석
	국립제주박물관(2006), 원과 탐라관계분석	"	원과 탐라관계 분석
	김기선(2008), 한,몽 교류사 분석	질적분석	한,몽관계 연구
	남도영(1969), 조선시대 목마장 연구	"	목마 실대 분석
	마쓰오(2013), 대원 제국 분석	"	대원제국 제도분석
	바타르(2006), 원과 고려 세력 분석	"	원과 고려 관계분석
	바타르(2009), 팍스몽골리카와와 고려	"	원과 고려 관계 분석
	배숙희(2012), 원나라의 탐라 통치와 자취	사료분석	몽골지배의 문화적 흔적분석
	이종수(2010), 탐라와 몽골의 음식문화분석	질적분석	탐라음식문화의 연원 분석
	이종수(2012.6), 탐라와 몽골의 음식문화비교 분석	질적분석	탐라와 몽골의 문화적 특성
	이종수(2013.12), 대원제국의 탐라지배 문화	"	대원제국의 문화특성과 변동
	이종수(2014.2), 대원제국의 탐라총관부 구조와 기능분석	"	대원제국의 통치구조와 기능
본연구의 차별성	대원제국 다루가치 행적을 통한 행정문화 이입과 영향 분석	질적분석	탐라다루가치의 행정지배와 그 문화적 영향분석

2) 분석의 틀

12~13세기 팍스몽골리카와 그 관리, 이주자들의 지배지에 대한 행정 문화적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근 130여년의 지배 장소 탐라에서 몽골 문화적 잔재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국의 지배체제와 방식 등의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문화 이입 분석의 변수는 지배 주체, 행정제도, 문화습속 등에서 찾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대도와 탐라에서의 다루가치 행적과 업적을 6사를 중심으로 <표 3> 같이 분석하고 그 문화적 영향을 3가지 측면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표 3> 분석의 틀

국가지역별	구 분	
	영향 요인	변동 요인
몽골과 탐라(고려)	- 팍스 몽골리카 - 몽골의 '육사'와 다루가치 - 다루가치의 직무범위	- 정치, 경제 영향 - 사회, 문화적 영향 - 음식문화적 영향

III. 대원제국의 탐라 다루가치 행적 분석

1. 육사와 다루가치

1) 다루가치 임용

1273년(원종 14) 몽골은 탐라를 직할령으로 삼고서 처음에는 탐라국초토사(耽羅國招討司)를 관부로 설치하였다. 원통 원년(1333) 원은 노열니타(奴列你他)를 그의 부친 타라치를 대신해서 탐라의 군민을 안무하는 다루가치로 임명해 호부를 하사하기도 했다(에르테니 바타르, 2006: 92).

몽골관리의 탐라 다루가치 임용 사례를 <표 4>에 제시한다.

<표 4> 몽골다루가치 등의 임용 사례

년대	관부	관직과 관원명	비고	출처
세조 至元 10년(1273)	耽羅國招討司	昭勇大將軍(정3품) 초토사 失里伯	오지 않음	譯註 元高麗記事
		초토부사 윤방보(漢人)	漢人	
지원 12년(1275)	軍民都達魯 花赤總管府	다루가치 孫攤	임직 불명확	元史 권 63. 지리지 6
지원 13년(1276)		다루가치 塔刺赤(來)	실리백 아들	고려사 권 28, 충렬왕세가
지원 21년(1284)	耽羅(國軍民) 按撫使	"		元史 권세조본기 10
		按撫使 忽都塔兒		
지원 24년 (1287)11월		다루가치 塔刺兒		고려사 권 30
지원 29년(1292)		우승 阿撤(來)	다루가치의 문책차 래도	고려사 권 30, 충렬왕 19년
지원 30년 (1293)9월		다루가치 탐자아(去)	교지(交趾)로 유배	
		다루가치 阿撤(임명)		

成宗 元貞 2년(1296)		斷事官 木兀赤(임명)	목축 일을 관리하기 위해 음	高麗史 권31, 충렬왕 22
성종 대덕 4년(1300)	탐라총관부			고려사 권31, 충렬왕 27
성종 大德 5년(1301)	耽羅軍民萬戶府 (耽羅軍民總管府)	萬戶 李莊	정동행성 소속 泰安李氏 시조	元史 권 63, 지리지 6
至大 원년, 1308		다루가치		
불명		高麗匡靖大夫都僉議評理上 護軍, 다루가치 朴景亮	고려인	
惠宗 元統 원년(1333)3월	耽羅國軍民按撫使	다루가치 노열니타 (奴列你他)(來)	탐자적의 아들	元史 권38 순제본기
혜종 至正 22년(1362)	耽羅萬戶府	(副樞) 文阿且不花가 整治事에 임명됨		탐라지 권1

출처: 배숙희(2012: 106-107), 고창석(1998), 장동익(2001).

2) 다루가치의 직무범위

쿠빌라이는 속국인 고려왕과 안남왕에게 내린 조칙에서 그들이 준수해야 할 여섯 가지(六事)로 인질, 군대, 양곡, 역참, 호적, 다루가치 설치 등에 따라 다루가치의 직무범위는 호구조사, 병력의 징발, 역참의 설치, 조세의 징수, 중앙정부로의 공납 수송 등이었다(마쓰오, 2013: 73-74). 소위 육사다. 이러한 의무를 준수하면 그 지역의 통치는 토착 유력자에게 위임했다(김일우, 2000: 261-307). 탐라의 경우 인질은 없었다. 『원고려기사』의 탐라 다루가치 사례(고창석, 1998: 469)에서는 다루가치는 무졸(戊卒)의 독려와 목마장 감독, 수역설치와 감독, 죄인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다루가치 탐자적 행적 사례 분석

1) 호구조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탐라민에 대한 호구조사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13세기 대원제국의 속국에 대한 육사 집행은 그 어느 곳을 막론하고 적용됐다는 원칙론에 입각한다면 탐라에도 그 시책에 맞게 호구조사를 시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2) 병력의 징발

몽골은 탐라를 남송과 일본 정벌의 전초·병참기지로 활용하던 1294년(충렬왕 20) 이전까지, 탐라 다루가치는 고려왕을 압박해 한때 4천 명이나 되는 상당수의 고려군을 탐라 주둔군으로 끌어들이기 만큼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1273년 여몽군의 삼별초 토벌이후 원은 본격적으로 군을 주둔시킴과 동시에 둔전(屯田)을 설치한다. 명분은 일본원정에 필요한 군량의 확보라고 하나 실은 고려 조정과 군대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였다(권영국, 1994: 134-136). 제주에도 500명의 원군을 주둔시켰다(『高麗史節要』 1권 19, 원종 14년 4월). 특히 원은 군의 발령권(發令權), 발병권(發兵權), 장병권(掌兵權)을 장악하고, 군기(軍器)도 철저히 통제한다. 만호부의 만호, 부만호 임명권도 행사한다. 탐라 둔전군은 둔전경략사에 속한 군인들이다. 탐라국 초토사에 진변군(鎭邊軍) 1,700명을 주둔시켰다(『元史』권 208, 열전 95 탐라전).

3) 역참의 설치

‘잠치(站赤)’로 불렸던 ‘대몽골제국’의 역전제도(驛傳制度)는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제국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였다. 역참(驛站)이라는 표현은 잠치의 중국식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30여 년간 지속된 고려 최씨 정권의 대몽항쟁이 종료되면서 몽골과 고려 사이에는 화친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수역 설치의 주목적은 원의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고려 역로망이나 고려에 신설된 수역체계 등은 기본적으로 원의 압박한 국가적 당면목표의 실현과 관련될 때에 원의 보다 강력한 간섭과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의 간섭과 개입은 철저히 원의 당면한 국가사업과 관련되었기에, 더 이상 원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폐기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고려의 사정은 거의 배려되지 않았다.

동정원수부(東征元帥府)의 토드코순(脫脫禾孫) 설치 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 역로망 운영에 대한 원의 직접개입은 2차 일본원정의 시기와 1290년대 강남과 고려, 고려와 요동 사이에 대량의 미곡이 운송되었을 때에 보다 명확히 나타났다. 수역 설치의 주목적은 원의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고려 역로망이나 고려에 신설된 수역체계 등은 기본적으로 원의 압박한 국가적 당면목표의 실현과 관련될 때에 원의 보다 강력한 간섭과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의 간섭과 개입은 철저히 원의 당면한 국가사업과 관련되었기에, 더 이상 원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폐기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고려의 사정은 거의 배려되지 않았다(정요근, 2007).

4) 조세의 징수

1275년 안향은 상주판관이 되어 몽골 전화로 도탄에 빠진 민생구원에 집중한다. 원에서 일본정벌을 위해 합포(마산)에 병마지휘영을 설치하고 전쟁준비를 위한 군함의 제조, 군양미의 비축 등을 위하여 장정의 징발과 세금의 추징 등으로 그 지방의 각 고을 주민들이 그를 감당하기 어려워 고달팠으나, 그가 선정을 베풀어 생계의욕을 갖게 하였다(김병구, 1998: 104).

제주주민의 징세부담 관련 고려 말 이제현(1287-1367)의 “탐라요”에 보면 제주방목장 설치로

관료들의 소나 말 등으로 경작지가 축소되어 농민들의 삶의 의욕의 상실 등의 정황과 ‘지보 집’에 지금의 돌담경계 완성 등의 사료가 있다. 또한 징수액 확보와 운송(진영일: 252-271), 물자 수탈과 목재수탈(김일우, 2000: 294-295), 해상 운송 등의 기록이 남겨져 있다.

5) 중앙정부로의 공납 수송

탐라 다루가치는 인력을 확보해 전함 수리소를 운영하는 임무까지 담당하였다. 1276년(충렬왕 2) 탐자적(塔刺赤)이 탐라 다루가치로 부임할 때 몽골말 160필을 가져와 서귀포시 성산을 수산리 일대에 방목함으로써 원 제국의 14개 국립목장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동·서아막(阿幕)의 짝을 트게 했다. 1283년(충렬왕 9)에는 탐자적이 원에 갔다 돌아오던 중 고려 조정에 들러 왕에게 향연을 베풀어 말 2필을 바치면서 신붓감 구해 주기를 부탁하자, 왕은 내시(內侍) 정부(鄭孚)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해주었던 일도 있었다.

탐라 명월포에서 중국 명주부 정해현으로 7일 동안 항해했다(배속희, 2012: 201). 또 탐라 다루가치는 충렬왕 4년에 이미 나주, 해남 방면에 역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 탐라에서 거두어들이는 물자의 원제국 수송을 위해 운영된 것이다(김일우, 2000: 293-299). 탐라와의 연결로는 해로(水驛)였다. 해상잠치(水站)는 물자의 대도(大都) 수송용이었다. 제주도 → 한반도 서안 → 직고 항로였다. 잠치는 약 40여개가 있었다가 20여개로 줄어든다. ‘천하참명(天下站名)’에 의하면 의주 → 개성 → 함포 노선과 나주 → 탐라노선 등을 확인할 수 있다(모리히라 마사히코: 185-188).

<표 5> 육사 집행사례분석

구분	육사(六事)				
	호구조사	병력의 징발	역참	조세	공납수송
탐라 다루가치	자료미비, 약 1만 여명으로 추정	탐자적이 고려왕에게 요청	탐자적이 나주 등에 설치 운영	이제현 사례 등에서 유추함	수참을 통하여 대도에 수송

IV. 탐라 다루가치 로행정 영향과 시사점

1. 탐라의 문화 변동

1) 탐라의 문화 변동

고려는 13~14세기 대부분 몽골의 군사적 침략과 직간접적인 지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원나라를 통해 다양한 외래문화를 받아 들였으며,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이개

석, 2007: 32).

두 차례의 일본 정벌이 실패하고, 이에 집착하던 황제 쿠빌라이가 충렬왕 20년(1294) 세상을 뜨자 이때부터 80여 년간 제주는 고려와 몽골을 수차례 오가며 귀속됐다. 제주가 양국에 이중 귀속되는 미증유의 처지에 빠져든 가운데, 탐라 국립목장에서 산출되는 말·소·쇠고기·버터류 등의 방물을 거둬가는 몽골의 경영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제주 사회의 주도권은 공민왕대(1352~1374년)에 이르러서는 ‘하치’라고 불린 목호세력이 장악하게 된다.

첫째, 몽골후손들은 제주가 몽골의 영향 하에 있던 13~14세기에 제주에서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제주지역사회에는 ‘호첩(胡妾)앞인가 기어 다니게’할 정도로 그들의 횡포가 심했다. 그들은 주로 군사적 측면의 직역을 맡았다. 19세기 중, 후반까지 대원본관을 유지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지속시켰다. 이후 조선시대 중앙정치인들의 제주유배와 그들의 후손들이 새로운 ‘來姓’이 되면서 대원 본관 성씨를 대체해 나가게 된다(김동진, 2000: 315).

주요 성씨는 좌씨(左氏)다. 조선 후기 이래 강씨 24명, 좌씨 7명 등 많은 몽골인들이 제주에 잔존하여 제주인들과 동화되었다(김동진, 2010: 313-323). 대원 강씨에서 진주 강씨로 본관을 바꾸며 적응한다. 원나라의 천관시랑(天官侍郎) 좌형소(左亨蘇)는 청주 좌씨의 시조인 좌구명(左丘明)의 67세손인데 충렬왕(재위 1274~1308) 초기, 사적으로 보면 충렬왕 원년인 1274년경 탐라총관부에 목마장이 설치되면서 감목관으로 부임했다. 한국 좌씨의 제주도 입도 시조로서 청주좌씨 세보에는 중조 또는 중시조라 칭한다. 중국 산둥성에 거주하였는데, 부친인 좌성보(星輔)는 중국 허난성(河南省) 개봉(開封) 사람으로 원나라의 천관시랑을 지냈으며 좌구명의 62세손인 송나라 황주(黃州)자사(刺史)를 지낸 좌헌(憲)의 후예다. 좌구명의 67세손인 좌형소가 1274년 제주도에 입도한 후 100년만인 1374년 비로소 한국인으로서의 좌씨 성이 출현했다. 제주의 左혜정은 “바로 우리 조상이 원 지배기에 제주도에 들어왔다”고 했다. 중국 산둥성의 청주(淸州)가 본관이다. 지금도 제주도 서쪽에 좌씨가 모여 산다. 좌가장(左哥場)이라 좌씨들이 관리하던 목마장이 제주도 동쪽에 있었다. 구좌읍에 좌씨 뿌리가 있었다. 몽골 목마장인 수산평(首山平)과 근접거리다. 이처럼 2013년 현재 좌씨 후손들이 제주에 거주하고 있다.2)

충렬왕 20년(1294) 경에는 몽골인들이 약 1,500여명에 이르렀다(김일우, 2005: 258). 이곳에서 일하던 몽골인들과 제주 여인들의 혼인이 일상화된 계기가 된다. 유목민인 원제국과 몽골문화의 급속한 이입이 이루어졌다.

둘째, 탐라(제주)의 성씨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 38 제주목 성씨조를 보면 원에서 온 성씨는 趙, 李, 石, 肖, 姜, 鄭, 張, 宋, 周, 秦 씨 등이다(바타르, 2009: 161 ; 국립제주박물관, 2006: 116). 이들은 모두 몽골 군인 후손들이었다(김동진, 2010: 308 ; 배숙희, 2012).

2) 청주 좌씨는 1985년 현재 전체 성씨 중 130위로 3,046명이다.

몽골은 1273년 삼별초 토벌 후 탐라국초토사(고창석, 1984: 382 ; 배숙희, 2012: 97), 군민도달로화적총관부, 군민안무사, 고려환부 탐라총관부, 군민만호부 등의 관부를 설치하고, 그 관료(다루가치)와 진수군(鎭守軍)이란 명목하에 몽골군의 일부를 탐라에 주둔시키는 과정에 이들과 목마장의 목호들이 래도(來島)한다. 이들 본관이 '대원(大元)'이다. 또 죄수와 윤남 왕족도 유배시켰다(김동진, 2010: 304-305). 약 30여 년 동안 수차례 관부의 명칭을 변경시켰다(고창석, 1984: 382). 1273년 삼별초를 평정한 원제국은 혼도(混都)가 돌아가면서 유수(留守)를 위해 남겨둔 400명의 몽고군을 통해 원의 탐라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가 시작된다(국립제주박물관, 2006: 115).

2) 몽골족의 정착과 제주 여인들과의 혼인

고려에 왔던 몽골군 중에는 원이 고려 여자와의 혼인에 관한 지침을 하달할 만큼 고려 여인과 혼인했던 자가 적지 않았다(『高麗史』 권29, 충렬왕 6년 10월조). 원제국시 탐라 몽골족들은 명나라가 개국하자 제주여인들과 혼인하여 점차 제주인으로 동화되었다(김동진, 2010: 310).

1254년 황해도에 주둔했던 1,400여 명의 몽골군은 모두 고려 여성을 아내로 삼았고, 함께 원나라로 갔다(김광언 외, 1993: 243-245). 당시 결혼도감, 과부처녀추고별감 등이 설치될 정도였다. 1262년 강화 후에는 원정부는 노골적으로 양가의 처녀를 요구했다. 1275년 10명이 떠난 것을 시초로 이후 80여 년간 엄청난 수의 고려 여성이 원나라로 갔다.

2. 문화적 영향 분석

1) 정치, 경제적 측면

탐라에는 군정(軍政)과 민정(民政)을 총괄하는 노총관부(路總管府)가 설치됐다(이종수, 2013.12: 1-31). 다루가치는 감치관(監治官)의 인신(印信)을 관장하고, 총관보다 치위가 높았다. 당시 행정구조와 목마장 설치지역은 조선 이래 현재의 행정구역의 근간이 된다(배숙희, 2012: 104). 지금의 북초등학교 인근이다. 여기에서 군정과 민정을 총괄했다. 다루가치 밑에 총관에는 고인단(高仁旦), 총관에는 적, 동지에는 문신 등을 임명한다(김일우, 2000: 289).

몽골지배는 제주에 '우마사육법'을 전해 산업을 발전시켰고, 경제력의 바탕을 이뤘다. 외부분화 유입은 제주문화 정체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고려는 섬 지역에 말(馬)을 사육하고 농경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제주도는 최대의 말 공급처였다. 탐라를 말의 사육과 산출지로 활용한다. 낙타, 소, 양, 나귀, 고라니도 사육했다.

결과적으로 탐라는 말들의 고향이 된다. 이러한 우마육성문화는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된다. 제주목의 "황태장" 대정현의 "모동장", 가파도의 "별준장", 정의현의 "천미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제민일보, 2013.3.24).

먼저 몽골 목마장이 운영되면서 우마 사육과 경제력이 증대되며, 마구가 도입된다. 이렇게 100여 년 동안의 로행정(路行政) 체제와 군, 관료, 기타 몽골 외지인들의 정착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음식 등 외래음식과 생활문화 유입과 목마장 운영 등의 경제적 측면 기술의 이입이다.

2) 사회, 문화적 영향

문화적 측면에서는 100여 년간의 탐라와 몽골접촉은 다양한 문화적 변이를 불러왔다. 먼저 몽골인과 탐라여인의 혼인으로 인한 중국 성씨의 증대, 호복 유래, 혼례의 변화, 고기 음식 성행, 몸국 등 국물문화 활성화, 몽골어 전래 등을 들 수 있다. 예컨대 성씨의 변화, 호본, 족두리, 혼례전 신랑이 신부집 가는 풍습 등이다.

첫째, 제주인들은 1270~1300년대 전후 고려 수도 개경에 1천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을 통하여서도 원제국과 고려 개성의 문물이 탐라에 유입된다(진영일, 2008: 249). 1323년 제주인들이 임숙(林淑)의 탐욕사실을 개경 시장터에 익명서로 공개했다. 동시에 정동행중서성에도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수락이 되지 않을 경우 원(元)의 상성(中書省)에 호소한다고 하여 파면된다.

당시 제주 출신 재경인(개경)은 1,000여명이었다. 제주 인구의 1/10이다. 개경과 제주간 활발한 문물교류가 있었다는 증거다. 이 당시 제주는 개경과 직접 교통하고 있었던 개방된 지역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 조선과는 다른 문화를 지녔다(진영일, 2008: 250). 이들이 개성에 거주하게 된 원인은 몽골군과 고려군 등 제주 유수 군관 1,400명 등에 대한 뒷바라지 때문이었다. 제주 다루가치가 개경에 사자 파견하여 군사를 요청한다(『高麗史』 1275, 8월 정미), 1282년 원에서 몽한군 1,400명이 탐라에 파견됐다. 이들 원 군사들에게 필요한 군량, 의복, 무기, 거처 등 바로 그 병참 문제로 제주인의 1/10 징발되어 개성에 거주한 것이다.

둘째, 13세기 이후 왕과 몽고왕비 유목민 등에 의해 몽골의 최상류층 문화와 유목민 음식이 유입된다. 13세기 탐라에 전해진 몽골풍 음식은 소주, 메밀, 탕, 육식, 순대, 상애떡, 쉰다리(쉰타라크) 등을 들 수 있다.³⁾ 대만의 몽골인 교수 하칸츄르는 "제주도만큼 몽골 상층족, 귀족과 황족의 풍습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없다. 제주는 몽골의 옛 문화를 연구하는 寶庫다."라고 했다. 그 만큼 오랜 세월 대원제국의 문화와 습속이 깊이 뿌리 내린 지역이란 의미로 읽힌다.

버드나무 민속, 석인상과 돌하르방, 아르히와 아랑지, 마문화, 연료와 쇠뿔, 피뿌리풀, 겐과 거리, 언어 차용 등 문화의 접변이 일어났다(장장식, 2010). 한국의 성황당(탐라의 할망당)과 몽골의 오부(Ovoo)의 유사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것들은 모두 개인과 동네의

3) 탐라와 몽골의 음식문화 특성 분석은 이종수(2012.6b) 참조.

안녕을 빌었던 샤머니즘의 일종이며, 지역경계 표시였다. 몽골의 훈출로(석상)는 13~14세기에 건립되었다. 몽골의 돌장승 훈출로와 제주도 돌하르방은 상당한 유사점이 많아 그 관련성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몽골의 유학생인 바타르씨가 제주 돌하르방을 보더니 “이 석상은 몽골인들이 게르안에 앉았을 때의 모습과 같다”고 평했다.

결혼식 할 때 짙는 연지는 몽골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아직까지 살아 있다. 족두리도 몽골인들이 쓰는 물건이었다. 또한 남성들의 의복인 백포는 소매가 헐렁하고 길이가 짧은 옷인데 몽골의 영향으로 소매가 약간 작아지고 길이가 길어졌다. 이 옷은 조선시대에 와서 두루마기가 되었다.

셋째, 탐라의 경우 비바리, 허벅(물기는 웅기), 굽부리, 검부낭치 등이다. 제주에는 현재도 정낭(출렁, chualung)이 남아 있다. 우마의 접근을 방지하는 통나무 기구. 애기구덕도 몽골족의 창작품이다. 제주의 그것은 대나무바구니(요람)로 만들어 흔들어 잠재웠던 아기 잠자리다.

넷째, 언어적 영향 측면이다. 윙이자랑, 부예 부예는 탐라와 몽골의 자장가다. 혼저 읍씨의 ‘혼저’도 ‘빨리’라는 몽골어에서 유래했다. 애막(Ayimag, 道, 부락 등의 명칭), 아기(갓난애), 마누라 등도 몽골어이다(김기선, 2008). 제주 ‘조랑말’은 몽골어 ‘조르모르’에서 유래되었으며, 말을 부리는 이들을 ‘테우리’라 하는 데, 소테우리, 말테우리 등으로 현재도 남아 있다.⁴⁾ 1960~80년대 시골 목동을 ‘테우리’라 하였다(배숙희, 2012). 제주에는 안채를 ‘안거리’로, 바깥채를 ‘밖거리’로, 그 사이에 있는 곁채를 ‘모커리’라 한다. 이 때에 쓰이는 ‘거리’가 몽골 전통 천막을 가리키는 ‘게르’에서 빌려와 굳어진 말이다(장장식, 2012: 485). 물기는 허벅은 몽골의 가죽물병 ‘허버’에서 유래했다(국립민속박물관, 2008: 95)는 설이 있다. 몽골어 ‘모르’가 제주어 ‘몰(馬)’로 정착된다.

3) 음식문화적 영향

음식문화의 변동과 토착화 등이다. 대만의 몽골인 교수 하칸츄르는 “제주도만큼 몽골 상층족, 귀족과 황족의 풍습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은 없다. 제주는 몽골의 옛 문화를 연구하

4) 테우리코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백중날 자정에 마소를 기르는 사람들이 방목장에 가서 마소의 무병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의이다. 칠월 보름 백중날 ‘테우리’(목동의 제주 방언으로 몽골어인 목동임)들이 떡과 밥, 술 등 제물을 가지고 자기 소와 말을 가꾸는 목장의 땅을 보는 테우리 동산으로 가서 차려간 제물을 조금씩 더 케우리며(흔뿌리는 것을 말함-고수레) 그 해 목축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제의이다. 제물로는 메1기, 떡, 삶은 닭, 구운 바닷고기 1마리, 과일 등을 마련하며, 고사가 끝난 후 다함께 음복한다. 제상은 깨끗한 곳을 택하여 띠를 깔고 그 위에 차려지며, 제상에 아기 기저귀를 잘라서 만든 ‘테우리수건’을 올리는 특이한 풍습이 있는 마을도 있다. 또한 이 날 집에서 쉼막(외양간)에서 팔떡을 올리고 심방을 빌어다 입담을 하여 마소의 건강을 빌기도 한다.제의 중에 목자들은 자기들이 소나 말을 가꾸는 언덕 이름을 하나하나 섬겨 나간다. “천왕테우리도 먹영 갑서, 인왕테우리도 먹영 갑서, 지왕테우리도 먹영 갑서, 테우리도 먹영 갑서”하면서 하나하나 언덕의 이름을 섬겨 나가는 것인데 대부분 그 마을 목장의 이름이 거의 입에 오르내린다(디지털제주문화대전).

는 寶庫다.”라고 했다. 13세기 이후 왕과 몽고왕비 유목민 등에 의해 몽골의 최상류층 문화와 유목민 음식이 유입된다. 13세기 탐라에 전해진 몽골풍 음식은 소주, 메밀, 탕, 육식, 순대, 상애폻, 쉰다리(쉰타라크) 등을 들 수 있다.⁵⁾

문화 간 접촉과 변용, 토착화 사례를 살펴보면 음식문화적 측면에서는 100여 년간의 탐라의 몽골접촉은 다양한 문화적 변이를 불러왔다. 유목민의 특성인 ‘탕 문화’ 등의 유사성을 확인한다. 제주(탐라)와 몽골음식문화의 연관성은 우리가 즐기는 소주가 고려시대 몽골에서 전래되어, ‘소주도’ 최영이 즐겼던 술이고, 제주인들이 즐기는 ‘뚫순대(돼지순대)’와 ‘빙떡’의 원조는 몽골이다. 대표적인 조리법도 삶기, 찜, 포, 훈제 등과 연료 절약을 위하여 한 번에 다량으로 삶는 방식도 상호 유사하다. 예컨대 음식의 ‘탕(湯)’문화, 순대문화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고려 말기에는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몽골의 침략과 그 영향에 의해서 육식이 왕성해졌다. 육류의 조리법은 탕, 찌개, 구이 등 3가지지만 보편적인 것은 탕이다. 특히 보신탕은 전국적이다. 육개장도 같다. 원의 영향을 받은 음식들은 선지국, 설렁탕, 갈비탕, 편육 등이다.

정리하자면 정치, 경제적 측면에서 우마사육 방법이 유입되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대원제국의 습속 침투로 인한 국제문화적 다양성 이입 및 음식문화적 측면에서 육식, 메밀문화, 증류주 및 순대 문화의 정착으로 요약된다.

이상의 주요 내용을 연구분석의 틀에 따라 몽골문화가 탐라에 끼친 영향을 <표 6>에 제시한다.

<표 6> 탐라의 몽골문화 영향 분석

구분	정치, 경제적 영향	사회 문화적 영향	음식 문화적 영향
탐라국 문화 변동	교초, 우마사육 등 전함건조, 목마(전마) 사육 馬具, 牛馬糞	혼저, 왕이자랑, 부예부예 대원(大元) 본관 유입 몽골인과 제주인 혼인 정착 언어, 고시례, 게르(거리), 허버(허벅), 세벳돈 풍습 등 유입 정낭, 아기구덕	음식문화 이입 메밀유입과 빙떡, 상애폻 증류주 고소리술 정착 양고기국이 품국(탕)으로, 제주 울래 돼지국수 탐라의 순대(수애), 쉰다리(타르크)

V. 결론

이 글은 필자의 탐라와 몽골연구 선행연구들에 대한 후속연구물로서 대원제국의 탐라 다루가치 행적을 중심으로 그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원제국의 문화가 탐라지역 문화에 미친 영향분석이다. 왜냐하면 고려시대 탐라는 몽골의 직접 지배기간이 가장 길었으며,

5) 탐라와 몽골의 음식문화 특성 분석은 이종수(2012.6) 참조.

그들이 직접 관료를 파견하여 지배함으로써 타 지역에 비하여 몽골문화가 가시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기에 그러하다. 그러나 탐라 사정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일부 중국(대원제국)과 고려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다루가치 개인 사료의 한계나 고려시대 탐라사료의 미비점이었다.

분석 결과는 첫째, 탐라는 일본원정과 해양세력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된 지역이었으며, 둘째, 몽골의 탐라 로(총관부)지역 통치는 내지의 변원지역과 비슷한 행정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탐라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다루가치 중심의 지배체제였다. 결과적으로 다양한 몽골인들의 탐라에 이주하여 그들의 문화이입이 성행했었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첫째, 정치 경제적 시사점과 둘째, 사회문화적 영향과 시사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추후 후속 연구과제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영향 분석과 함께 고려의 목자복, 개가죽 두루마기(전통생활관, 가상체험시스템), 양왕자터, 백백태자 등(감산태평, 2014.3.2.)의 거처지 등과 몽골인들은 문지방을 밟으면 주인의 목을 짓밟는 행동으로 여긴다는 금기 사항의 제주적 전통 등도 조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700여 년간의 공백으로 인한 기록물의 제한으로 인하여 심층적 분석이 곤란하였다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제주박물관. (2006). 『몽골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 고병익. (1962). 러대 정동행성의 연구(하). 『역사학보』제19집, 한국역사학회.
- 고병익. (1999). 동아 삼국인의 상호이해. 『이화사학연구』25-26권, 이화사학연구소.
- 고창석. (1984). 러,원과 탐라와의 관계. 『제주대논문집』17집, 제주대학교.
- 고창석. (1998). '원고려기사' 탐라관계기사의 검토: 13세기 탐라와 원과의 관계. 『경북사학』제21집, 경북사학회.
- 권영국. (1994). 원간섭기 고려군제의 변화. 『14세기 고려의 정치와 사회』민음사.
- 김광언 외. (1993). 『몽골, 바람의 고향 초원의 말발굽』조선일보사.
- 김기선. (2008). 『한, 몽문화교류사』민속원.
- 김동전. (2010). 조선후기 제주 거주 몽골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호적증초에 보이는 '대원'가문의 사례분석. 『지방사와 지방문화』제13권 제2호.
- 김병구. (1998.4). 안향의 생애와 사상. 『한국사상과 문화』제1집, 수덕문화사.
- 김삼수. (1980). 한국소주사: 「주세법」(1909)에 이르기까지. 『숙명여대 논문집』제20호, 숙명여대.
- 김상기. (1962). 『고려시대사』서울대출판부.
- 김일우. (2000). 『고려시대 제주사회의 변화』서귀포문화원.
- 남도영. (1969). 조선시대 제주도목장: 한국목마장 연구의 일단. 『한국사연구』제4집, 한국사연구회.
- 모리히라 마사히코. (2001). 제국동방 변경에서 일본을 막는다: 원제국 속에서 고려의 기능적 위치.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동북아역사재단.
- 문연식. (2008). 『역주 원고려기사』선인(고려대변역팀).
- 박용운·이정신 외. (2001). 원나라 간접지배의 실상. 『고려시대 사람들 이야기 1, 정치생활』신서원.
- 박용운 외. (2003). 『고려시대 사람들 이야기 3, 교육사상 및 문화생활』신서원.
- 배숙희. (2012.2). 원나라의 탐라 통치와 이주, 그리고 자취. 『중국사연구』제76집: 95-122.
- 박원길. (1999.9).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민속원.
- 에르테니 바타르. (2006). 원, 고려지배세력관계의 성격 연구.(강원대 문학박사학위논문).
- 에르테니 바타르. (2009). 『팍스몽골리카와 고려』혜안.
- 오타기 마쓰오저, 윤은숙, 임대회 역.(2013.5). 『대원제국』혜안.
- 이개석. (2007.12). 대몽고국-고려 관계 연구의 재검토. 『사학연구』제88호.
- 이중수. (2010.3). 우리나라와 몽골의 음식문화: 제주(탐라)와 몽골음식을 중심으로. 『세계식품과 농업』제560호, 제52권 제3호, FAO 한국협회: 48-57.
- 이중수. (2012.6). 탐라와 몽골의 음식문화 비교연구. 『탈경계인문학』pp. 211-242. 제5권 제2호. 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 이중수·권찬호. (2012.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ODA 지원사례분석," 『정책연구』제173호,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95-128.
- 이중수. (2013.8). 서울음식문화 정체성 스토리텔링. 『인문과학』제98집, 연세대 인문대: 147-184.
- 이중수. (2013.12). 대원제국의 탐라지배와 문화적 영향. 『인문학연구』제21집, 동덕여대인문학연구소: 1-31.
- 이중수. (2014.6). 몽골제국의 탐라총관부 구조, 기능분석. 『공공정책과 국정관리』단국대사회과학연구소: 3-30.
- 이성우. (1984). 『한국식품사』교문사.
- 장장식. (2010). 문화비교로 본 제주와 몽골의 민속: 제주의 정체성 탐구를 위한 시론. 『동아시아문화와 예술』제7호, 동아시아문화학회: 35-65.
- 정요근. (2007). 고려 역로망 운영에 대한 원(元)의 개입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64: 제62~65호.
- 잭 웨더포드. (2005).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사계절.
- 장동익. (1990). 정동행성의 연구. 『동방학지』 제67집, 연세대 국학연구원: 1-85.
- 장동익. (1992). 원의 정치적 간섭과 고려정부의 대응. 『역사교육논총』 제17집, 역사교육학회: 1-23.
- 진영일. (2008).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진축삼. (1989). 몽원과 제주마. 『탐라문화』제8집,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Buell, P.D. (2003). *Historial Dictionary of the Mongol World Empire*(Lanham, M.d.: Scarecrow).
- Buell, P.D., & Eugene N.Anderson. (2002). *A Soup for the Quan: Chinese Dietary Medicine of the Mongol Era as Seen in Hu Szu-Hui's Yin-Shan Chang-Yao*(London: Kegan Paul).

[저자소개]

- 李 炳 烈** 충남대학교 행정학박사 취득(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 정책대안모색을 위한 실증적 연구), 1989년 이후 현재 우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행정이론 및 행정사상, 재무행정, 지방행정, 복지 및 환경행정 등이다. 저서로는 「환경행정론(공저)」, 「지방정부혁신론(공저)」, 「미르의 산책」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정도전의 민본 행정사상 연구”(2014), “사회복지기관의 마케팅과정에 관한 연구”(2006),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2005) 등이 있다. 독일Speyer행정대학원에 Gastforscher (2002-2003)로 있었고,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Visitng Scholar(2010 - 2011)로 1년간 다녀온 바 있으며, 한국행정학회부회장(2012)과 행정고등고시위원(2005)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지방자치학회부회장(2014-2015)으로 있다(byungryul@daum.net).
- 李 宗 秀** 중앙대 행정학박사(1994). (현)한국행정학회 이사, 서울스토리텔링연구원장, (전)중앙대 법대, 정경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역임. 저서로는 『21세기 지방자치와 지역문화』(대왕사, 2006), 「서울시 장소자산 연구」(2009) 등과 “관료병 스토리텔링 힐링”(2013.12), “조직문화와 조직구조관계 분석”(2008), “공공조직 혁신문화와 직무만족도 관계분석”(2009.9), “무형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마케팅 연구: 종로 ‘피맛골’이야기를 중심으로”(2011.3) 등 다수 발표(ljsjs4329@hanmail.net).